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WSJ: 전문가들, “오일 138불 넘지 않으면 침체 없다”
- NYT: 어제 수요일 연준 회의 5가지 핵심 사항
- Bloomberg: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건, 올해들어 가장 낮아

[미국 금융]

- WSJ: 연준, 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 방안 발표
- CNBC: 인플레이 우려로 미 2년물 국채 금리 크게 상승

[중동 위기]

- Bloomberg: 카타르, “이란 공격으로 주요 가스 시설 피해, 복구에 수년 걸릴 것”
- WSJ: 미 국방장관, “이란 전쟁 끝낼 것이다”

[유가]

- YahooFinance: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에 브렌트유 108달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메이시 CEO, 소비 패턴 세 갈래로 나뉜다

[오늘의 금융 지표]

-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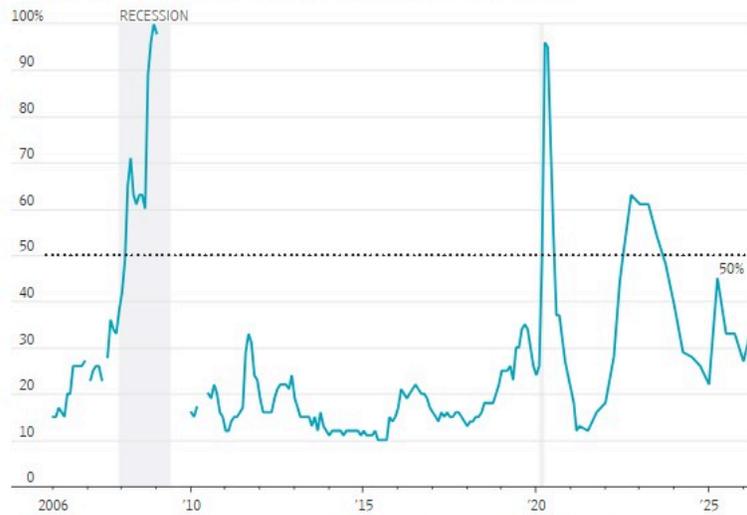
[미국 경제]

WSJ: Economists Don't See a Recession Unless Oil Hits \$138—and Stays There for Weeks

전문가들, “오일 138불 넘지 않으면 침체 없다”

-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했지만,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.
-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12개월 내 경기침체 확률을 32%로 상향 조정했으며, 이 확률이 50%를 넘기 위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평균 138달러 수준에 도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
- 또한 이들은 올해 말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2.9%로 높이는 한편,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치는 줄였다.

Probability the U.S. is in a recession in next 12 months including today



Note: Average of economists' answers. Gaps indicate question not asked or data unavailable.
Source: WSJ surveys of economists

기사

NYT: Here are five takeaways from the Federal Reserve meeting.

어제 연준 회의 5가지 핵심 사항

- 연준은 올해 들어 금리를 두 번 연속 동결했지만, 이란 전쟁과 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보고 있다.
- 대부분 관리는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, 물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예상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
- 연준은 경기 둔화 위험과 물가 상승 위험 사이에서 정책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갇혀 있는 셈이다.
-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하지 않으면 금리는 동결하지만 진전이 있다면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.
- 파월 의장은 임기 이후에도 후임이 없으면 일시적으로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, 연준 관련 조사 상황도 향후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.

기사

Bloomberg: US Jobless Claims Declined Last Week to Lowest Since January

미 신규실업수당 청구건, 올해들어 가장 낮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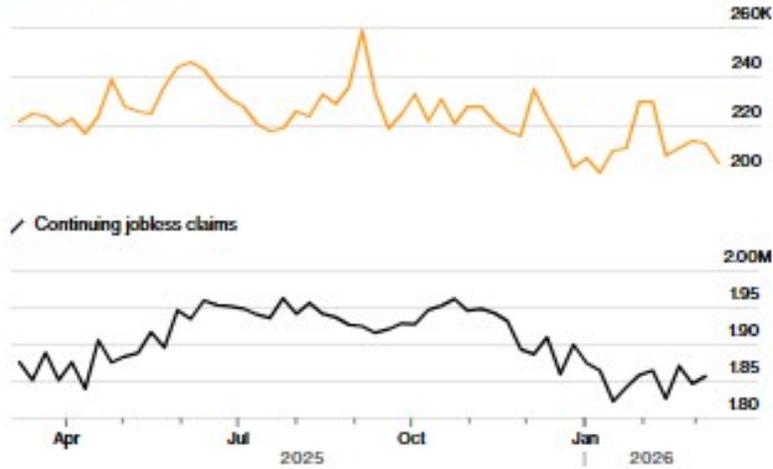
- 지난주에 신규 실업청구 건수 숫자가 올해 들어 가장 낮아 고용주들의 해고 건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.
- 연방노동국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신규 실업청구건수가 3월 14일 끝나는 주간엔 8천건 줄어든 2만 5천 건을 기록했다. 예상치 21만 5천 건보다 낮았다.
- 전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늘어난 총 1백86만 건으로 집계됐다.

기사

US Initial Jobless Claims Fall to the Lowest Since January

Recurring filings rose to 1.86 million in the previous week

Initial jobless claims



Source: US Labor Department

[미국 금융]

WSJ: Federal Reserve proposes lowering capital requirements for banks

연준, 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 방안 발표

- 연준은 오늘 목요일 금융위기 때 도입된 은행 자본 규제를 조정하는 내용을 제안했다.
- 은행들의 현금 준비금을 줄여 경제 변화에 맞추고, 대출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.
- 이 방안에 따르면 JPMorgan Chase와 Bank of America 같은 대형 은행은 자본을 순 4.8% 줄이고, 이밖에 자산이 1천억~7천억 달러인 다른 대형 은행들은 5.2% 줄인다. 자산이 1천억 달러 미만인 은행은 7.8% 줄어든다.

기사

CNBC: 2-year Treasury yield jumps as fear of rising inflation weighs on sentiment

인플레 우려로 미 2년물 국채 금리 크게 상승

- 2년물 미 국채 금리는 오늘 목요일 발표된 용 지표와 미국-이란 전쟁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면서 상승했다.
- 연준의 단기 금리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2년물 금리는 0.09% 이상 올라 3.837%를 기록했다.
- 벤치마크가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0.01% 이상 상승해 4.273%였고,
- 30년물 국채 금리는 0.02% 이상 하락해 4.857%를 보였다.

기사

[중동 위기]

Bloomberg: Qatar Says Iran Strike Damage to Key Gas Plant Will Take Years to Repair

카타르, “이란 공격으로 주요 가스 시설 피해, 복구에 수년 걸릴 것”

- 현재 수십 개의 정유소, 유전, 가스 시설, 항구 및 기타 에너지 기반시설이 아라비아만 지역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.
-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은 후, 미국은 일부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.
- 이란은 홍해의 사우디 주요 정유시설과 카타르 LNG 수출 시설을 공격했다.
- 더욱이 이란 정부 남부 PARS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추가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.
- 한편 미 국방장관은 이란과의 분쟁이 장기적인 군사 개입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.

기사

WSJ: Hegseth Says 'We Will Finish This' on Iran War 미 국방장관, "이란 전쟁 끝낼 것이다"

- 미 국방장관은 이번 이란 전쟁이 이전의 중동 작전과 달라, 이란 정부가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"우리는 이번 전쟁을 끝낼 것"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또한 목표는 처음과 변함없으며, 분쟁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.
- 한편 트럼프는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, 카타르 가스가 다시 공격 받으면 미국이 "전부 폭파하겠다"라고 경고했다.

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il and Gas Prices Jump as Strikes on Gulf Facilities Escal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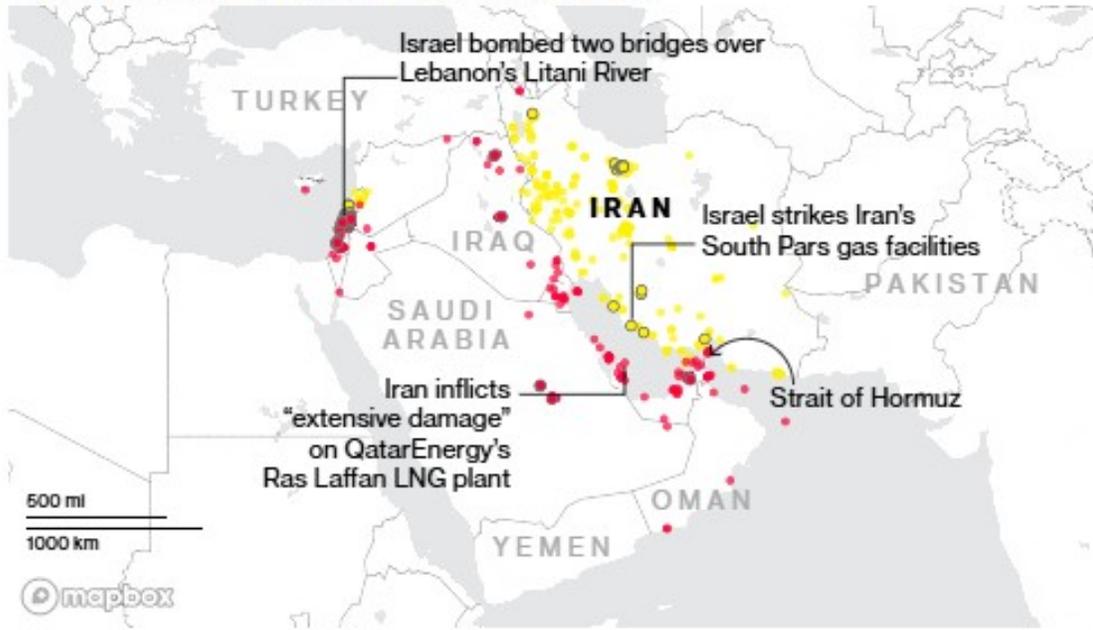
걸프 시설 공습 타격에 오일, 가스 급등

- 페르시아만에서의 공격이 격화되면서 주요 에너지 시설이 장기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.
- 유럽 가스 선물은 전쟁 전 대비 2배 이상 오르고, 브렌트유는 배럴당 119달러, 유럽 디젤은 190달러를 넘어 인플레이션 우려를 보이고 있다.
- 카타르의 RAS Laffan LNG 단지가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크게 손상됐으며, 연간 1천3백만 톤, 국가 LNG 수출의 17%를 생산하는 이곳 두 개의 시설 복구에는 3~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.

Major Oil and Gas Facilities Targeted by Iran, Israel

Strikes since Feb. 28, most recent are circled

■ US and Israeli airstrikes ■ Iran and proxies response



Sources: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and AEI's Critical Threats Project as of March 18 evening Middle East time, Bloomberg News reporting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Macy's CEO Points to E-Shaped Economy, Signaling Consumer Shift

메이시 CEO, 소비 패턴 세 갈래로 나뉜다

- 미국 경제를 설명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“E자형(E-shaped) 경제”가 등장했다. 메이시 백화점 CEO 등 일부 관계자들은 경제가 기존의 두 방향이 아니라 세 갈래로 나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한다.
- E자형 경제는 부유층은 잘 나가고, 중산층은 “그럭저럭 버티고 있으며”, 저소득층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. 특히 중산층은 높은 물가에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.
- 이에 따라 소매업도 변화하고 있다. Costco, Walmart와 같은 할인점에서 필수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.

기사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]



US 30	45,943.90	-280.8	-0.61%	📉
US 500	6,596.60	-28.1	-0.42%	📉
Dow Jones	45,946.69	-278.46	-0.60%	📉
S&P 500	6,597.05	-27.66	-0.42%	📉
Nasdaq	22,042.38	-110.04	-0.50%	📉
S&P 500 VIX	25.08	-0.01	-0.04%	📉
Dollar Index	99.385	-0.488	-0.49%	📉

미국 USD
1,494.90
▼10.10 -0.67%
03.19. =

유럽 EUR
1,724.07
▼0.06 0.00%
03.19. =

일본 JPY
944.85
▲3.49 +0.37%
03.19. =

중국 CNY
216.80
▼1.22 -0.56%
03.19. =

유로/달러
1.1448
▼0.0088 -0.76%
03.19.

영국 파운드/달러
1.3255
▼0.0100 -0.75%
03.19.

원전고시환율

국제시장환율

🇺🇸 미국 USD

1
1 달러

🇰🇷 대한민국 KRW

1,494.90
1,494.90 원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